

아크릴산, LG화학-SK 한판 불가피

중국수요 급증으로 SK 참여 확실 ... LG화학 2014년 26만톤으로 확대

중국이 <단독 두자녀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SAP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독 두자녀 정책>은 부부 중 한명이 외동이며 자녀를 둘까지 출산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정책으로 결혼 연령대에 이른 젊은이들이 대부분 외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두자녀를 허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유아용품 원재료인 SAP(Super Absorbent Polymer) 생산기업이 기대감에 부풀 것으로 알려졌다.

SAP는 아크릴산(Acrylic Acid)을 원료로 생산하고 있으며 자체 중량 대비 최대 1000배의 물을 흡수해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도 흡수된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위생용 흡수제품 전문 컨설팅기업 Price Hanna Consultants는 글로벌 SAP 시장이 2017년까지 연평균 6%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태지역의 기저귀 보급률은 2012년 12%에서 2017년 20%로 연평균 8.9% 성장하고, 중국 SAP 수요는 2017년 33만톤으로 중남미와 동일한 수준이 예상되고 있다.

2013년 글로벌 SAP 수요는 약 200만톤으로 유아용 기저귀 70%, 성인용 기저귀 20%, 여성위생용품 5%, 산업용 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SAP 원료인 아크릴산 수요도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크릴산은 국내에서 LG화학이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으며 2014년 초 8만톤 증설을 완료해 총 생산능력을 26만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SK종합화학도 일본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울산에 16만톤 플랜트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평균수명 연장과 인구 고령화로 성인용 기저귀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SAP 시장이 뜨거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1/25>